

# 보 도 자 료

발 신	창원상공회의소	수 신	전 언론사
배포일시	2020. 1. 14(화) / 총2매	보도일자	1월 14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문 의	조사홍보팀	김기환	055-210-3022

## 보 도 내 용

### 제 목 : 2020년 1분기 창원지역 경기전망조사

-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'64.7', 11분기 연속 기준치 밑돌아
- 전기전자 매출액 점진적 회복 기대, 나머지 업종은 여전히 매출감소 전망
- 올해 가장 큰 리스크로, 국내 '내수침체 장기화'와 '고용환경 변화',  
대외 '보호무역주의 지속', '환율·금리 변동성 심화'
- 정부에 바라는 역점 경제정책, 60.5% '고용·노동정책 탄력 적용' 꼽아...

창원상공회의소(회장 한철수)는 1월 14일 창원지역 제조업체 119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0년 1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기업경기전망(BSI)조사' 결과를 발표했다. 그 결과, 2020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가 '64.7'을 기록했다. 이는 12개 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밑돈 결과로 창원지역 기업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.

항목별로 내수 매출액 80.7, 영업이익 72.3, 설비투자 81.5, 자금조달 여건 69.7로 조사대상 전 항목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.

2019년 4분기 실적BSI도 매출액 51.3, 영업이익 54.6, 설비투자 70.6, 자금조달 여건 62.2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하회했다.

\* 기업 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,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.

업종별로 전망BSI는 조사대상 전 업종이 기준치를 하회한 가운데, 전기전자 업종이 82.6로 가장 높았고, 기계업종 75.0, 철강금속 73.7, 운송장비 55.0으로 조사되었다.

매출 부문 전망BSI는 전기전자 업종이 104.3으로 조사대상 업종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고, 나머지 기계업종(91.7), 철강금속(84.2), 운송장비(75.0) 업종은 기준치를 밑돌았다.

나머지 업종별 영업이익, 설비투자, 자금조달 여건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.

응답업체들은 올해 국내 기업 리스크로 ‘내수침체 장기화’와 ‘고용환경 변화’가 각각 35.1%, 30.6%로 가장 많이 꼽았다. 다음으로 ‘투자심리 위축’ 20.7%, ‘정부규제’ 6.2%, ‘총선 등 정치이슈’ 5.8%, ‘기타’ 1.7% 순으로 응답했다.

국외 리스크로는 ‘미·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지속’이 36.1%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‘환율·금리 변동성 심화’ 23.3%, ‘중국 경제성장 둔화’ 19.4%, ‘한·일 갈등’ 18.5%, ‘브렉시트’ 1.8%, ‘기타’ 0.9% 순이었다.

이에 따른 올해 사업계획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1.5% ‘보수적 운영’을 꼽았고, 나머지 18.5% 만이 ‘공격적 운영’으로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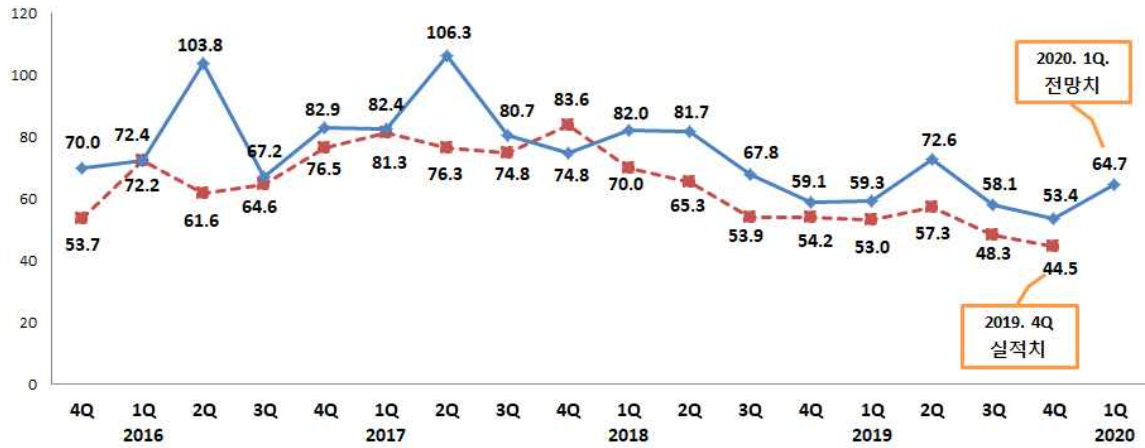
보수적 운영을 계획 중인 업체의 이유로 응답업체(n=97) 77.3%는 ‘불확실성 증대’를 꼽았고, 다음으로 ‘원자재값 변동성 확대’ 12.4%, ‘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’ 9.3%, ‘기타’ 1.0% 순이었다.

올해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52.9%는 ‘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’할 것으로 응답했고, ‘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’으로 응답한 업체는 38.7%, ‘지난해 보다 늘릴 것’으로 응답한 업체는 8.4%에 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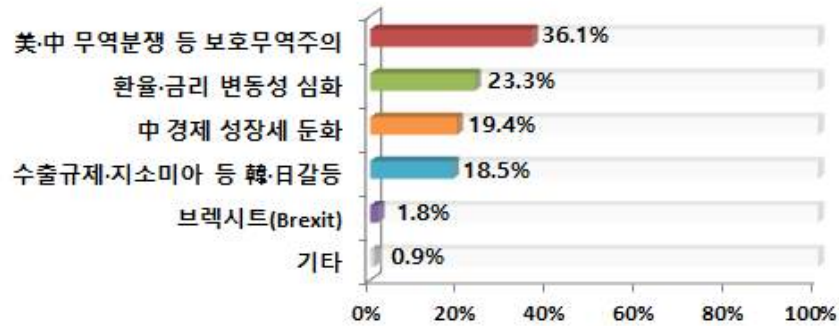
정부에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‘고용·노동정책 탄력 적용’을 전체 60.5%가 꼽아 다수를 차지했다. 다음으로 ‘수출·투자 모멘텀 회복’ 21.8%, ‘파격적 규제개혁’ 17.6% 순이었다.

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“국내외 수요 부족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보수적 운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.”고 말하며, “내수침체 장기화, 미·중 무역분쟁,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, 국내 근로시간 단축 등 지난해 지역기업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온 이슈들이 올해에도 뚜렷한 변화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.”고 덧붙였다.

창원지역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 및 실적 추세(2015. 4Q ~ 2020. 1Q)



< 2020년 주요 대외리스크 >



< 2020년 주요 대내리스크 >

